

연설 1: Eunkyo Jo

강연 적요: 대한민국 대다수의 여성들이 남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와 직장 속 경제활동을 하는 반면 아직도 한국의 전통적 사상으로 인해 집안의 가사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여러분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아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좋은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 내에서 태어나 설날, 추석 등의 연휴기간이 될때마다 (마침 저번주도 연휴였네요) 가족과 친척들이 할아버지 댁에 모이게 됩니다.

저와 제 두 자매는 할머니, 어머니, 고모/이모들을 도와 매 식사를 차립니다. 여자들이 요리를 하고 식탁을 차릴때 할아버지와 고모부/이모부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한적이 없었으나 요즘들어 이 상황 속 성차별을 자각하고 여러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가사활동을 전담하는 문화속에서 자란 저는 집안에서 여자들이 남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출근해서 돈을 버는 동안 할머니께서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부양의 부담을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웠고요.

그러나 한국 문화는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취업률은 높아지고 전통적인 “남성의 종사업종”에도 점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사회속 경제활동에 동일하게 힘을 쓰고 있지만 왜 가사활동을 전담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먼저, 전통적인 성역할이 어떻게 확립되게 됐을까요?

며칠전 아버지께서 조선시대 당시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유교사상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한명의 지도자가 비교적 안정적이게 온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유교사상은 지도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존경을 추구합니다. 유교사상이 가부장제를 선호함에 따라 조선시대 여성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남성들은 가정 내 우두머리의 역할을 가지며 가족, 공동체와 사회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좋은 아내와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는 사상이 현실적인 “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써 안정을 추구하며 질서있는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에서는 성역할이 그 방법 중 하나였죠.

저는 유교사상이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가 깊었던 20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2000년대는 할머니와 여성들이 주부가 되고 식사준비, 청소, 육아 등의 집안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입니다. 제 친구들의 어머니들은 오늘까지도 비슷한 역할로 가사활동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제 어머니는 여자들을 위한 교육열이 남달랐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랑 똑같이 두 자매가 있고 이모 두분께서는 대학교를 진학하시고 직장도 있으십니다. 어머니가 의대를 다니셨을 때는 의대 내 몇 안되는 여성중의 한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를 봐주세요. 여학생들이 고졸로 대학 진학을 안하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International Consultants for Education and Fairs에 따르면 2012년 학생인구 중 여학생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대학교 입학율과 졸업율이 남성들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까지 한국은 첫 여성 총리,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첫 여성 대통령 후보와 첫 여성 대통령을 보게 되고, 여성 CEO와 커리어우먼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인력이 2005년에 처음으로 천만을 넘게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가 늘면서 OECD 평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활동도 동일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여성들만이 집안일을 책임지게 되나요? 왜 “좋은 아내”는 식사준비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육아생활에 전념하는 아내라고 정의하고, “좋은 남편”은 아내를 부양하고 돈을 충분히 벌어드리는 남편이라고 생각할까요?

- 이와 같은 성역할은 문화에 많이 녹아들어있습니다. 며칠전, 저는 제 친구가 아기들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넌 진짜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아” 라고 말한 순간 제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여성들과 남성들이 같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의 차이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제 어머니를 다시 한번 예로 들자면, 직장내에서 담당부서의 대표로 일하시고, 오전 7:30에 출근해 오후 6:30에 퇴근하십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부엌에서 2시간동안 저녁 9시까지 서 계시면서 식사준비와 청소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날때마다 집안정리도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집안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랑 교육과 훈련을 똑같이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보다 더 사회활동의 기회가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통적 성역할 때문에 어머니가 저희를 돌보시는 것이 문화적인 의무가 되면서 직장내에서 보낼 시간을 집안에서 많이 보내시고, 아버지는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OECD에 의하면 2016년 대한민국 남성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직장내에서 422분을 일하고 여성들은 직장내에서 273분을 일합니다. 이는 약 두시간 반의 차이정도가 됩니다. 동시에 수입이 없는 사회활동에서 여성들은 273분을 일하는 반면

남성들은 45분을 일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한국의 여성들은 매일 남성들보다 33분 더 일하였다고 (수입이 없는 사회활동 + 직장활동)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족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부가 집안일을 동일하게 나누는 가정도 보았고, 갈등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외식을 하거나 주방 아주머니를 고용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매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성역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들이 아닌 여성 소비자들을 겨냥한 페브리즈 광고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세제, 주방 기기등의 광고들은요? 남녀임금격차, 행동과 걸모습에 제약을 두는 여성의 상품화 등으로 나타나는 직장내에 성차별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으로써 우리는 사회와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가치관을 수용하고 따릅니다. 엄청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결국 더 약한 존재가 됨으로써 남자들로부터 전통적 성역할들을 강요받게 됩니다.

여성들이 진로와 꿈을 펼쳐나가기에 법적, 문화적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할 권리가 남성들만큼이나 있습니다. 평등을 이루기 위한 마음도 사람의 근본 중의 하나죠.

이 모든것이 제가 시야가 넓지 못했을 때 본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일하고 싶고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의 가사활동을 도우면서 전통적인 장애물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깊게 하면 할수록 갈등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화적이고, 성평등을 위한 싸움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적합한 일이 있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적합한 일이 있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적으로 힘이 세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되는게 불공평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여성들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도 문화적 성역할, 신체적 성역할, 그리고 가부장제의 금전적인 책임감으로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때도 제 관점이 어느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숙모들은 가족 모임때 음식 준비에 부담감이 큰 편이지만, 한 숙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써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을때 숙모는 자기도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커온 터라 집안일을 전담해야하는 책임감이 스스로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연휴때도 마침 외삼촌께서 숙모의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으나 숙모는 항상 혼자 하는 것을 더 선호하십니다. 아내와 어머니로써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일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여성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속모꼴에서는 책임감과 책임 자체는 제 세대에는 바뀌어야 되고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변하기에 집안 성역할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당연하죠.

사람들은 전통과 개혁의 중간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전통이 신체적 특징이나 본능등의 사람의 근본적 성향에 의해 확립되었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고군부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성역할에 대한 논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 대본은 남성들을 겨냥하며 아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집안일을 거두고 가사활동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성과 남성들에게 여러분이 진정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책임을 다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압박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이 여러분의 꿈과 가능성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통적 사상에서 벗어나 가정과 직장의 책임을 같이 하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이로써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의 뜻에 차이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